

호남 최대 규모 '광주역 창업밸리' 본격 스타트

코레일 소유 유휴부지 매입 완료 공공투자 비용 4400억 원 투입 2027년까지 창업시설 단계별 구축

호남권 최대 규모로 추진 중인 '광주역 창업밸리' 조성 사업이 부지 매입을 완료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4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광주역 후면 유휴부지 매입을 모두 완료했다.

시는 지난 4월 국토교통부 부지 5132.5㎡를 사들인 데 이어 이번엔 한국철도(코레일)가 소유한 광주역 후면 유휴부지 8730.5㎡를 모두 매입했다. 이로써 광주시는 시유지 361㎡를 포함해 1만4224㎡의 전체 부지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2021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광주역을 경유하는 달빛내륙철도가 반영되는 등 사업 여건 변화로 부지매입에 난항을 겪어왔으나, 사업 대안 마련과 지역 정치권 협조 등에 힘입어 2년여 만에 모든 부지

를 확보하는 성과를 냈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광주역 스타트업 창업밸리 조성 사업은 광주역 유휴부지에 경제적 파급력이 높은 창업지원 인프라를 구축하고 사회·경제적 인프라를 개선해 쇠퇴한 도심에 되살리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출발했다.

오는 2027년까지 공공투자 비용만 4400억원이 투입되며, 사업은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2663억원)과 도시재생 혁신지구 조성 사업(1688억원)으로 나뉜다.

시는 어울림팩토리과 빛고을창업스테이션, 복합허브센터, 기업혁신성장센터,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일자리연계형주택 등 창업지원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시설 간 유기적 연계를 통해 창업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에 매입한 부지에는 창업지원시설인 복합허브센터와 기업혁신성장센터,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창업자들에게 주거를 지원하는 일자리연계형 주택 등 4개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복합허브센터는 이미 설계가 완료돼 이르면 올해

내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광주시는 또 기업혁신성장센터,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일자리연계형주택은 2024년까지 설계와 착공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겠다는 의지다.

이 밖에도 2020년부터 광주역 전면 주차장 부지를 활용해 공사하고 있는 빛고을창업스테이션은 현재 공정률이 70%로, 2024년 상반기 준공 후 하반기부터 초기 창업자들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빛고을창업스테이션 맞은편에 노후건물을 리모델링해 구축한 어울림팩토리는 이미 창업기업 6개소가 입주해 미래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초석을 다지고 있다.

김준영 광주시 신활력추진본부장은 "코레일 부지 매입으로 광주역 스타트업 창업밸리 조성 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호남 최대 창업밸리 조성과 더불어 인근 주민을 위한 도시재생 사업도 성실하게 추진해 광주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오는 2027년까지 4400억원을 투입해 호남권 최대 규모로 조성하는 '광주역 창업밸리' 조감도.

'광주형 문화공적개발원조 사업' 아시아 교류협력 창구로 뜬다

아시아문화탐험대, 中 난양시 행사 낙후공간 문화재생 프로그램 추진 도시 간 결연 장기 교류·협력 희망

광주시의 광주형 문화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이 아시아 국가들로부터 호응을 이끌어 내는 등 새로운 국제 교류 협력 창구로 떠오르고 있다.

4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형 문화공적개발원조사업에 참여한 도시들이 광주시와 도시 간 결연 추진에 나서는데 등 장기적 교류와 협력을 요청하고 있다.

광주시 청년예술인으로 구성된 아시아문화탐험대는 지난 11월 6일부터 15일까지 10일간 중국 난양시 화가촌 일원에서 해외 문화탐험대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난양시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에 힘입어 난양시 이공대와 사범대, 화가촌 예술가, 난양시미술협회, 난양시문화예술계연합회 등이 대거 참여해 협력이 전개됐다. 이들은 공동 연대를 통해 화가촌의 낙후된 공간 10여 곳을 예술적 대안으로 모색하는 문화재생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도 했다.

난양시가 해외 도시와 공적개발원조 방식으로 문화공적개발원조 사업에 나선 것은 광주시가 처음이라고 한다. 난양시 예술가들은 사업을 통해 스스로 화가촌을 위한 방안을 고민하고 실행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두 도시 간 문화예술계연합회 부주석은 "이번 교류를 통해 양국의 문화 번영과 발전을 촉진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서용빈 난양시 미술협회장은 "한중 양국의 미술가들이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교류와 협력을

통해 상호 학습과 귀감의 시간, 서로를 이해하고 포용하는 시간이 됐다"며 문화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교류를 주도한 아시아문화탐험대는 광주형 문화공적개발원조사업에 참여하는 광주와 아시아 각국 청년예술인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스트리트 퍼니처 등 공공미술을 통해 도시의 문화적 재생을 시도하는 새로운 형태의 도시 탐험식 문화교류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광주와 태국(치앙마이), 중국(난양), 우즈베키스탄(사마르칸트) 등 4개국 청년예술인들이 광주 청춘발산마을의 문화재생 현장을 살펴봤다.

아시아문화탐험대는 앞으로도 세계 각 도시를 이해하고 광주의 예술도시 경쟁력을 탐험, 자신들의 도시에 응용하는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탈북민, 北 가족에 연평균 367만원 송금

중개수수료 송금액의 41.8%

북한이탈주민들이 북한 가족에게 연평균 367만원을 송금하고 있으며, 돈을 보낼 때 부담하는 중개수수료가 송금액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4일 북한인권정보센터가 내놓은 '2023 북한이탈주민 경제사회 통합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대북 송금을 1회 이상 한 탈북민 비율은 20.0%였다. 이는 지난해(17.8%)보다 소폭 상승한 것이지만,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28.5%)과 비교하면 8.5%포인트 낮은 비율이다.

특히 국내 입국 후 북한에 있는 가족·지인에게 1회라도 송금 한 경험이 있는 탈북민은 63.5%로

조사됐으며, 1인당 연평균 송금 횟수는 1.5회, 송금액은 367만원이었다. 작년 평균 송금액(401만원)보다는 줄었고, 2019년(161만원)보다는 크게 늘어난 액수다.

대북 송금 중개 수수료는 계약 기준 송금액의 평균 41.8%였으며, 실제 청구는 평균 48.1%까지 높게 나타났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같은 조사에서는 계약 수수료율과 실제 수수료율이 각각 평균 30.9%와 33.5%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북한인권정보센터가 북한이탈주민 전문조사기관 엔케이소셜리서치와 함께 북한이탈주민 패널 400명(기초 패널 297명, 신규 패널 103명)을 대상으로 지난 9월 19일~10월 13일에 전화 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다. /박진표 기자 lucky@

'남도 한바퀴' 입소문 타고 인기몰이

이용객 2만5000명 지난해보다 49%↑ ... 전남 메가 이벤트 연계 호응

전남의 주요 관광자원을 순환하는 버스 프로그램인 '남도 한바퀴' 이용객이 2만5000명을 넘어서 올해 안에 3만 명에 이를 전망이다.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등 굵직한 이벤트들과 연계해 저렴하면서도 전남이 가진 핵심 자원과 유명 식당을 한 데 엮어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4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11월 말까지 남도한바퀴 이용객이 1029회, 2만5471명에 달해 지난해 같은 기간(654회, 1만7115명)보다 49%나 늘었다. 올해 남도 한바퀴 이용객이 대폭 증가한 것은

일반코스 기준 9900원부터 2만4900원까지로 다양하고 저렴한 30여 개의 일한 코스를 기획, 이용객 선택의 폭을 넓힌 것이 주요한 요인이다. 또 문화관광해설사가 함께 탑승해 자세한 설명으로 관광지에 대한 지식과 흥미가 배가돼 이용객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게 된 점도 한 몫 했다.

여기에 전남도에 열린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등 대규모 메가 이벤트와 연계한 특별코스를 운행한 것도 큰 호응을 얻었다.

이에 전남도는 12월부터 2024년 2월까지 3개월간 22개 시·군을 순환하는 시티투어 '남도한바퀴' 겨울 히트 상품 28개 코스 상품을 출시했다. 가족과 가까운 지인이 함께 따뜻한 남도를 즐기도록 순천 세계수석박물관, 보성 판소리성지, 함평 엑스포공원 등 실내 위주 코스로 구성했다. 연말연시 일출 일몰을 감상할 목포포구, 겨울 포구와 낭만을 만끽할 광양 배알도 섬 정원&망덕포구 코스와 고흥 동강5일장, 함평 천지 전통시장 등 제철 진미를 느낄 지역 5일장 코스도 포함했다.

조대정 전남도 관광과장은 "남도한바퀴는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여행을 편리하게 즐길 수 있어 코로나 이후 이용객이 대폭 늘었다"며 "앞으로도 남도한바퀴가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예향 전남' 드높인 명예예술인 24명 지정

전남도가 지역문화협력위원회를 열어 2023년 전남도 명예예술인 24명을 지정했다. 전남도는 도내 거주자로 30년 이상 예술활동에 매진하면 서 뛰어난 예술적 성취와 사회 기여를 통해 '예향 전남'의 명성을 드높인 70세 이상 원로예술인을 대상으로 문학·미술·연극 등 분야별 명예 예술인을 지정하고 있다.

2022년 '전남도 명예예술인 지정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된 후 전국 최초로 총 31명의 명예 예술인을 지정했다.

올해는 지난 10월 한 달간 신청한 예술인 중 시·군에서 신청 자격 등 1차 심사를 거쳐 추천받은 26명의 원로예술인을 대상으로 진행해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전남도 명예예술인은 ▲문학 김현태(78)·윤문철(75)·임병식(77) ▲극악 양장열(75) ▲사진 송창근(83) ▲연극 박광태(71) ▲서예 강수남(73)·김광숙(72)·김선우(78)·신수일(81)·임주선(77)·홍은옥(82) ▲한국화 곽창주(70)·김선영(70)·목창선(79)·박재욱(71)·백용운(72)·정선덕(72)·주권옥(81) ▲서양화 박동열(73)·박주하(70)·손영선(70)·이웅성(80)·정다은(87) 작가다.

명예예술인 지정서 수여식은 오는 28일 예정됐다. 지정된 명예 예술인에 대해서는 작업실이나 자택에 '전남도 명예예술인 지정' 현판을 부착해 자긍심을 고취하고, 예술활동 지원 등 예우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

개발부지 매매

경상남도 창원시 창원국가산업단지

매매금액	720억
대지면적	66,773㎡ (20,198평)
연 면 적	33,730㎡ (10,203평)
용도지역	일반공업지역

- 한전 수전 사전검토 100MW 검토 완료로 데이터센터부지로 활용 가능
-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전기, 수도 등 첨단산업 중심 유치로 연계사업, 연구 등 시너지 효과 발휘 가능
- 전국 항만 누적 물동량 41%에 달하는 부산항, 마산항, 감천항 인근에 위치한 자산
- 현 매각 토지 약 2만여평으로 1만평으로 분할 매입 협의 가능

대표 번호 02-554-9685 (주)알스퀘어에셋부동산중개 | 대표 영업 오후 11690-2019-00486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11 3층 (역삼동, 아남타워)

못 받은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5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 수 금 출 장 비 용 없 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건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785-0073